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5-02호 | 2025년 01월 22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한주 | idp.theminjoo.kr

2025년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 유능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

임 규 빈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요 약 》

■ 현황 :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중

- 윤석열 비상계엄의 경제충격은 **현재 진행 중**
- 고환율과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추세의 주식시장으로 **한국 경제 대외신뢰도 하락 우려**
- 국내·외 경제기관 2024년과 2025년 **1~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 비상계엄에 따른 **GDP 감소분 6조 3,010억원 추정**

■ 한국 경제 전망 : 민간소비 상승세 위축 우려와 수출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전망

- 2024년과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2%, 1.5%**
- 민간소비 상승세는 윤석열 비상계엄·탄핵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위축될 우려** 있음
-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 **증가세 전망** (트럼프 2.0 시대에 의해 **제한적일 전망**)
-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와 각종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악화로 **감소 전망**
- 재화수출은 미국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로 증가율이 작년 대비 급격히 **감소 전망**

■ 제언 : 조속한 윤석열 탄핵 마무리·긴급추경·유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리더십 구축

- **조속한 윤석열 탄핵 마무리**를 통한 환율·주식시장 안정과 민생 경제 안정
- 비상계엄 이후 위축된 민간소비·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추경(최소 20조 이상)**
- 윤석열 탄핵 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유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리더십 구축**

▶ 키워드: 2025년 한국경제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윤석열 비상계엄의 경제적 충격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한국 경제 현황 :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중

○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경제 불확실성 지속 : 고환율과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의 주식시장

-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 급상승 후 1,450원대의 고환율 유지
 - 원·달러 환율 1,395원 (2024. 12. 2.) → 1,433원 (2024. 12. 10.) → 1,453원 (2025. 1. 21.)
-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추세 유지
 - 누적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3조 2,351억원 (2024. 12. 3. ~ 2025. 1. 21.까지의 누적금액)
-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
 - 고환율과 지속적인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감소로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 하락 우려

○ 한국경제의 어두운 전망 : 2024년과 2025년 1~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GDP 성장률)

- 국내 주요 경제기관의 낮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표 1 참조)
 - 국내 주요 경제기관의 2024년과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2.1%, 0.9~2.0%
 - 한국은행은 1월 20일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경제 심리 위축에 2024년과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2024년 : 2.2% → 2.0~2.1%, 2025년 : 1.9% → 1.6~1.7%)
 - ※ 2025년 경제성장률 감소분의 0.2%p는 정치 불확실성에 의한 효과로 추정
 - 한국은행의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GDP 6조 3,010억원에 달함

<표 1> 국내 주요 경제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25년 1월 기준)

(단위: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민주연구원
2024	2.2	2.2	2.0~2.1	2.2	2.2	-
2025	2.0	2.1	1.6~1.7	2.0	1.7	0.9~1.5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민주연구원

- 해외 주요 경제기관 및 투자은행 또한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표 2 참조)
 - 해외 주요 경제기관의 2024년과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2.5%, 1.3~2.0%
 - IMF는 1월 17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0월에 발표한 3.2%에서 0.1%p 상향 조정한 3.3%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10월 발표한 2.1%에서 0.1%p 하향 조정한 2.0% 전망
- 정부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 (2025년 1월 발표)
- 민주연구원에 의하면 비상계엄에 의해 2025년 경제성장률의 0.4%p~1.0%p 하락 예상
 - 정치·경제적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를 이용하여 윤석열 비상계엄의 경제적 충격 추정
 - 윤석열 비상계엄의 경제적 충격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경제적 충격과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윤석열 비상계엄의 경제적 충격 추정¹⁾ (자세한 내용은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4-45호 '윤석

열 비상계엄의 경제적 충격' 참조)

- 경제성장률 0.4%p~1.0%p 하락, 실업률 0.3~0.6%p 증가, 투자는 0.8~1.2%p 감소 추정
-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과 불안정한 주식시장 등에 의하여 **성장의 하방리스크** 여전히 존재

<표 2> 국외 주요 경제기관·투자은행별 경제성장률 전망 (2025년 1월 기준)

(단위: %)

	아시아 개발은행	IMF	OECD	바클리	BOA	골드만 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2024	2.0	2.2	2.3	2.3	2.5	2.1	2.2	2.3	2.2	2.3
2025	2.0	2.0	2.1	1.8	1.8	1.8	1.3	1.7	1.7	1.8

자료: 국제금융센터

2. 한국경제 전망 : 위축된 민간소비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 감소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2024년과 2025년 경제성장률 각각 2.2%, 1.5%

-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정부와 투자은행 포함) 전망치와 민주연구원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2024년과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2%, 1.5%**로 전망됨
-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 **1.5%**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 윤석열 비상계엄은 내수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에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 충격 초래
 - 올해는 비상계엄·탄핵에 의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고 경제성장률 회복에 힘써야 할 시기

○ 민간소비는 회복하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 : 윤석열 비상계엄·탄핵에 의한 하방리스크 존재

- 2024년과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1.2%, 1.6%** (표 3 참조)
 - 대부분의 경제기관은 금리 인하, 물가안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완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온 높은 물가·금리의 영향으로 낮은 민간소비 회복세 전망
 - 한국은행도 2024년과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원래 전망치보다 **0.2%p 낮춤**
- **윤석열 비상계엄·탄핵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의 하방리스크** 존재
 - 박근혜 탄핵이 있었던 2016년 4분기의 민간소비는 동년 3분기 증가율보다 0.2%p 감소
 - 박근혜정부 때의 경제적 상황(평균 3.02% 경제성장률)이 윤석열정부보다 좋았던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비상계엄·탄핵에 의한 민간소비 감소는 0.2%p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소비 증가폭이 둔화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1월 20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에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가 397까지 치솟음 (정상 평균치는 100대 초반)

<표 3> 민간소비 전망 (2025년 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2025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1.8	1.0	1.5	1.2	1.5	1.8	1.6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주: 위의 경제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치 추정

○ 설비투자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증가세 전망 : 트럼프 2.0 시작에 따른 증가폭 제한적

- 글로벌 IT 경기 호조와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025년 설비투자는 각각 1.4%,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4 참조)
- 단, 2025년은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는 해로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설비투자 회복세는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전망
 -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시작될 보편관세와 미·중간의 무역전쟁 본격화로 인해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음

<표 4> 설비투자 전망 (2025년 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2025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1.1	-1.8	4.6	1.4	4.4	1.2	2.7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주: 위의 경제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치 추정

○ 건설투자는 부진 지속될 전망 : 건설투자 주요 선행지표의 악화로 건설투자 부진 지속

-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와 각종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악화로 2024년과 2025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1.7%, -1.4%로 전망 (표 5 참조)
 - 2022년 중반부터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와 수주, 허가, 착공 등의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 악화로 인하여 건설투자는 감소할 전망
 - 2024년 9월부터 건설수주의 지속적인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소요될 전망
 - 2025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4년에 비해 0.3%p 개선될 것으로 전망

<표 5> 건설투자 전망 (2025년 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2025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1.5	0.4	-3.7	-1.7	-3.4	0.6	-1.4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

주: 위의 경제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치 추정

○ 수출증가율은 2025년 감소 전망 :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 대비 필요

-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에 의한 미국과의 통상환경 변화와 2025년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에 따른 글로벌 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표 6 참조)
 - 2024년과 2025년 재화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6.4%**, **1.7%**
 - 2024년과 2025년 재화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1.2%**, **2.0%**
 - 2025년 재화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2024년 전망치 보다 **4.7%p** 감소
-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보호 기조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응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의 격화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 존재
 - 한국은행은 글로벌 무역갈등이 격화될 경우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0.2%p**, **0.1%p** 하락할 것으로 분석
- 이에 정부, 국회, 기업은 트럼프 2.0 시대의 높아진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 필요
- 한국은행은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 수출의 내수기여도는 약해지고 민간소비의 내수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여 트럼프 2.0 시대의 수출 감소를 대비한 정부의 **민간소비 활성화 정책**이 필요

<표 6> 수출입 전망 (2025년 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2025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재화수출	2.9	8.4	4.5	6.4	1.5	1.9	1.7
재화수입	-0.3	-1.3	3.8	1.2	2.9	1.2	2.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주: 위의 경제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치 추정

3. 제언 : 조속한 윤석열 탄핵 마무리·긴급추경·유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리더십 구축

○ 환율·주식시장 안정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불확실성 제거 : 조속한 윤석열 탄핵 마무리

- 현재 대한민국 경제위기는 윤석열 비상계엄에 의해서 촉발되었음
- 신속한 비상계엄 수습과 윤석열 탄핵으로 한국의 정치경제는 정상화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고환율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 하락은 국내 총생산의 약 36%(2023년 국내 총생산의 수출 비중은 35.7%)를 차지하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고환율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환율·주식시장 등의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윤석열 리스크’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조속한 제거 필요

○ 비상계엄 이후 위축된 민간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 최소 20조 이상의 추경

- 올해 민간소비 증가는 윤석열 비상계엄의 여파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과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 필요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윤석열 비상계엄 충격에 의한 경제 안정화를 위한 15조~20조 추경 가능한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 과감한 민간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올해 1분기에 한국은행의 제시안인 20조보다 큰 규모의 추경 필요

○ 유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리더십 구축 : 민생 경제 안정과 트럼프 2.0 시대 대비

- 1월 20일(현지시각) 트럼프 美 대통령 취임으로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시대 도래
- 미국의 보편 관세 도입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불가피하고 세계 6위(2024년 기준) 수출국가인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 시급
- 윤석열 탄핵 후 트럼프 2.0 시대와 경기 후퇴를 대비한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갈 유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리더십 필요
 -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로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의 산업정책 필수
 - 윤석열 비상계엄에 의한 정치적 불확실성 위기까지 겹친 한국은 국가 지원의 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과감한 통상정책과 물가 등을 안정시킬 수 있는 민생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 유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리더십과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정안정 필요